

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6-5363884호 (2026.04.03~2027.05.02)

2026년 03월 31일

투자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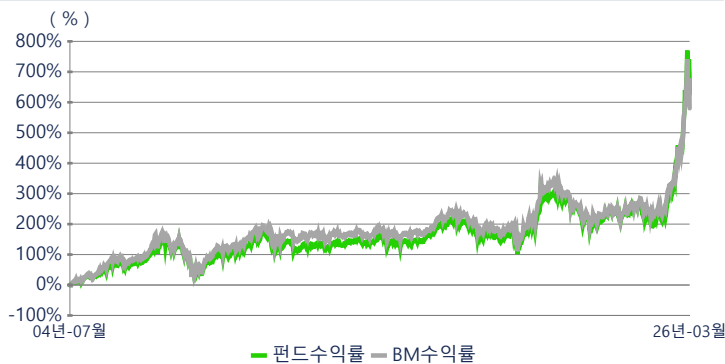
베어링 K-성장리더스 증권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80%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며,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한국대표 성장기업을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,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합니다.

상위 10개 보유 종목

| 종목 | 구성비율(%) |
|--------|---------|
| 삼성전자 | 23.35 |
| SK하이닉스 | 13.63 |
| SK스퀘어 | 4.21 |
| 삼성전기 | 2.18 |
| 효성중공업 | 1.84 |
| 두산테스나 | 1.55 |
| 이수페타시스 | 1.54 |
| 두산 | 1.50 |
| ISC | 1.48 |
| 한국금융지주 | 1.46 |

* 운용펀드(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기준)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.

펀드 운용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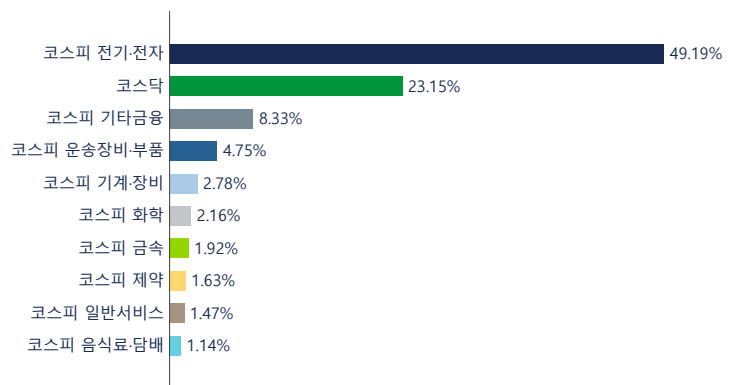


* 최초 설정일이 2004.07.23인 Class C 수익률 기준입니다.

* 운용성과, 수익률 그래프, 누적 수익률의 성과는 세전 수익률로 미래 운용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
*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 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

상위 10개 업종별 보유 비중



* 업종별 보유 비중은 주식 내 비중으로 산출되었습니다(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기준 산출).

기간별 수익률(%)

| 구분 | 1개월 | 3개월 | 6개월 | 1년 | 3년 | 설정이후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Class A | - | - | - | - | - | 50.89 |
| Class Ae | -16.28 | | | | | -7.92 |
| Class C | -16.36 | 28.40 | 58.13 | 129.20 | 122.07 | 627.66 |
| Class C-P2e | -16.29 | 28.60 | 58.62 | 130.63 | | 116.09 |
| Class C-Pe | -16.21 | | | | | -8.00 |
| Class S | -16.29 | 28.61 | 58.63 | 130.67 | 126.64 | 199.54 |
| Class S-P | -16.26 | 28.74 | 58.93 | 132.21 | | 119.54 |
| Class S-R | -16.28 | 28.64 | 58.72 | 130.98 | | 115.83 |
| BM | -19.08 | 19.89 | 47.53 | 103.64 | 103.99 | 580.35 |

*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

자산구성

| 자산 | 구성비율(%) |
|------------|---------|
| 주식(운용펀드기준) | 98.37 |
| 단기상품 | 1.63 |

* 자산, 주요종목, 업종별 비중은 2026.03.31 기준입니다.

[투자시 유의사항]

- ※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※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※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 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종류형 펀드의 경우,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·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※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6-5363884호 (2026.04.03~2027.05.02)

2026년 03월 31일

펀드개요

| | |
|-----------------|--|
| • 순자산* | 110억원 |
| • 기준가 | 920.83원 |
| • 펀드설정일 | 2026.02.23 |
| • 신탁업자 | 우리은행 |
| • 합성총보수-비용(연,%) | |
| 종류 Ae: 1.116 | (운용:0.7,판매:0.35,신탁/사무:0.066기타:0) |
| 종류 C: 1.768 | (운용:0.7,판매:1,신탁/사무:0.066기타:0.002) |
| 종류 C-P2e: 1.078 | (운용:0.7,판매:0.31,신탁/사무:0.066기타:0.002) |
| 종류 C-Pe: 1.141 | (운용:0.7,판매:0.375,신탁/사무:0.066기타:0) |
| 종류 S: 1.066 | (운용:0.7,판매:0.3,신탁/사무:0.066기타:0) |
| 종류 S-P: 0.966 | (운용:0.7,판매:0.2,신탁/사무:0.066기타:0) |
| 종류 S-R: 0.956 | (운용:0.7,판매:0.19,신탁/사무:0.066기타:0) |
| • 투자위험등급 | 2등급(높은위험) |
| • 선취판매수수료 | |
| • 후취판매수수료 | 0.150% (S) 이내-3년 미만 환매시 |
| • 환매수수료 | 없음 |
| • 환매대금지급기준 | 15시 30분 이전 :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: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|
| • 벤치마크 | KOSPI X 100% |

* 순자산 규모는 운용펀드 기준

※합성보수비용은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

※설정 1년 미만인 클래스의 경우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

※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:종류 S-R(0.282%),종류 C-P2e(0.274%),종류 S(0.273%),종류 C(0.273%),
종류 S-P(0.273%),종류 A(0%)

※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은 추정치를 사용하였기에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은 상이할 수 있으며 설
정 1년 미만의 펀드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

투자자 유의사항

- 이 운용보고서는 베어링자산운용에서 작성한 것으로 펀드 가입자의 상품 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,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
-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.
-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의견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자료의 정확성, 완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보고서의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내용의 무단복사, 사진복사 또는 복제될 수 없습니다.
-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금펀드의 경우, 중도해지나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, 해지 가산세 부과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과세율과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소득공제의 기준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자산, 주요종목, 국가별 비중은 운용펀드 내 비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(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기준 산출).
- 해당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 따라서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, 베어링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.



BARINGS.COM

베어링자산운용

[투자시 유의사항]

- ※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※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※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 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종류형 펀드의 경우,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·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※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